

- 주요 뉴스: 미국 3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 2년 만에 최저, 근원 CPI는 높은 수준 지속
 - 3월 FOMC 의사록, 금리인상 전망 악화. 신용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경계
 -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제어 위한 추가 조치 필요
 - ECB 부총재,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은 예상보다 강한 편. 금리인상 의지 시사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향후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악화

주가 하락[-0.4%], 달러화 약세[-0.7%], 금리 하락[-4bp]
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경기 불확실성 부각 등이 원인
유로 Stoxx600지수는 미디어 및 산업관련주 강세 등으로 0.1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금리인상 중단 시기 근접 가능성 등이 반영
유로화 및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4% 상승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배경
독일은 ECB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20.2원, -5.5원) 0.2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4/12일	4/11일	전일대비			4/12일	4/1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92.0	4,108.9	-0.41%	국채 금리 10y	미국	3.39%	3.43%	-4bp
	유럽	462.38	461.79	0.13%		독일	2.37%	2.31%	6bp
	중국	3,327.2	3,313.6	0.41%		영국	3.57%	3.54%	3bp
	일본	28,083	27,923	0.57%	CDS 5y	한국	45bp	45bp	0bp
	한국	2,550.6	2,547.9	0.11%		중국	67bp	71bp	-4bp
환율	달러지수	101.54	102.20	-0.65%	위험 지표	EMBI+	-	416	-
	유로화	1.0992	1.0912	0.73%		VIX	19.09	19.10	-0.05%
	엔화	133.13	133.68	0.41%		WTI유	83.26	81.53	2.12%
	위안화	6.8730	6.8860	0.19%	원자재	구리	408.1	402.0	1.53%
	원화	1,325.7	1,322.2	-0.26%		금	2,014.9	2,003.6	0.56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- **미국 3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, 2년 만에 최저. 근원 CPI는 높은 수준 지속**
 - 3월 CPI의 연간 상승률은 5.0%로 전월(6.0%) 대비 하락하면서 '20년 5월 이후 최저. 월간 상승률 역시 전월비 하락(0.4%→0.1%). 이번 결과는 중고차와 에너지 가격의 큰 폭 하락(각각 -11.2%, -6.4%) 등에 기인
 - 다만 미래 인플레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근원 CPI는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이 전월비 상승 및 하락(각각 5.5%→5.6%, 0.5%→0.4%). 이는 식품가격과 주거비의 상승(각각 8.5%, 8.2%) 등이 반영
 - 연준이 이번 결과에 다소 만족할 수는 있지만, 양호한 노동시장 여건 등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점은 주의할 사안(BMO Capital Market).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가 존재하지만, 연준이 현 상황에 만족하기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은 편(Wells Fargo)
 - 인플레이션이 인위적 개입 없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률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(TS Lombard의 Steve Blitz). 5월 FOMC에서는 0.25%p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6월에는 금리동결을 전망(Goldman Sachs)
 - 한편 CME FedWatch Tool에 따르면, 연방기금금리(현재 4.75%~5.00%)는 5월에 0.25%p 인상되어 최종금리(5.00%~5.25%)를 형성한 후 7월, 9월, 12월에 각각 0.25%p의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- **3월 FOMC 의사록, 금리인상 전망 약화. 신용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경계**
 - 3월 FOMC에서 위원들은 일부 은행의 파산 사태 등으로 금리인상 전망을 하향 조정. 최근 은행권 불안이 경제활동 혹은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금리인상 중단이 적절하다는 의견 제시. 반면 여타 위원들은 은행권 불안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인상 지속을 주장
 - 한편 연준의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긴축 등으로 금년 하반기 완만한 경기침체가 시작되고 이후에 2년에 걸쳐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 리치몬드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제어 위한 추가 조치 필요

- 바킨 총재는 3월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(연율 2%)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. 수요 둔화 신호가 존재하지만, 근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높아 인플레이션 제어 관련 승리 선언은 이르다고 언급
- 한편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,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 시 추가 금리인상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

■ 미국 국가경제위원장, 은행시스템은 견고하고 안정적

-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일부 지역은행이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선택하고 경영관리가 엉망이었지만, 미국 은행시스템은 견고하고 안정적이라고 평가. 핵심 은행들은 충분한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

■ ECB 부총재, 근원 인플레이션 압력은 예상보다 강한 편. 금리인상 의지 시사

- 데 권도스 부총재는 근원 소비자물가의 경우 높은 수준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.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이 ECB의 인플레이션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
-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의 홀츠먼 이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 시 5월에 0.50%p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

■ 캐나다 중앙은행, 금리 동결.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으나 필요 시 금리인상 가능

-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. 통화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충분히 완화시킬 정도로 제약적인 수준에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고 발표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위해 통화정책 완화 지속할 방침

- 우치다 슌이치 부총재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언. 한편 금융기관들의 자본은 충분한 수준이어서 서방 은행권 불안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4/13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생산자물가, 4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글로벌 저축, 경기변동 등으로 급격히 축소될 수 있는 위험 내재 - Financial Times

(Global savings glut more ephemeral than we think)

- 500조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저축 가운데 상당 부분은 주식, 부동산 등의 형태로 유지. 이는 저금리 및 낮은 수준의 자본이득세에 따른 현금 기피 현상에 기인. 아울러 경기변화에 따라 저축 규모의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의미
- 최근 부동산 및 주식가격 하락 등을 고려 시 단기간 내에 상당한 저축 손실이 발생할 우려. 또한 이러한 형태의 저축을 현금으로 전환할 경우 시장여건, 높은 거래 비용 등으로 자산의 액면가치 보전은 기대난
- 저축의 현금화 관련 어려움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.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
■ IMF 금리 전망, 주요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조와는 상충 - 블룸버그

(Central Bank Hawks Had Better Hope the IMF Is Wrong About Rates)

- 4월 IMF 세계경제전망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시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관측. 이는 주요 통화당국의 긴축 기조와는 상이. 이에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방향을 급격히 전환할 경우 신뢰성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
- IMF가 전세계적인 리스크 요인 억제를 위해 금리인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, 중앙은행들은 과거에 이미 물가 판단에 오류를 범했기에 최근의 인플레이션 둔화 혹은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하는 입장
- 현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그 동안 시행했던 통화긴축의 효과를 확인 및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

■ 미국과 중국의 정부부채 확대 전망,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소지 - WSJ

(U.S., China to Lead Growth in Government Debts)

- IMF에 따르면, 미국과 중국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(23년 기준 미국은 122.2%, 중국은 82.4%에 이를 전망). 이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, 팬데믹 기간의 경기부양책 확대 등에 기인. 아울러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국방비 지출,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도 정부부채 증가로 연결될 소지
- 이와 같은 정부부채 및 지출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주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 노력을 저해할 우려

■ 무역금융에서의 위안화 비중,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대 - Financial Times

(Renminbi's share of trade finance doubles since start of Ukraine war)

- 달러화 조달 비용 상승과 중·러 간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으로 전 세계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이 작년 2월 2.0% 미만에서 금년 2월 4.5%로 상승해 유로화 비중(6%)에 근접.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내려 위안화가 저금리 통화로 바뀌도록 유도한 점도 무역자금 조달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
- 러시아는 국제금융거래의 표준인 SWIFT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(CIPS)을 이용해 중국산 상품 비용을 위안화로 지급

■ 취약한 세계경제, 성장 회복력 복원 위해 글로벌 공조 필요 - Financial Times

(The fragile global economy)

- IMF는 글로벌 중기 성장 전망을 30년래 최저 수준(2.2%)으로 전망. 이에 세계 각국은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가 긴요한 상황
- 구체적으로 주요국은 금리급등 과정에서 노출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, 은행 및 비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. 또한 저소득 국가의 부채 수준을 낮추기 위한 조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이 중요

■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, 취약한 수익구조 등으로 만성화될 우려 - WSJ

(For Regional Banks, Surviving Won't Be the Same as Thriv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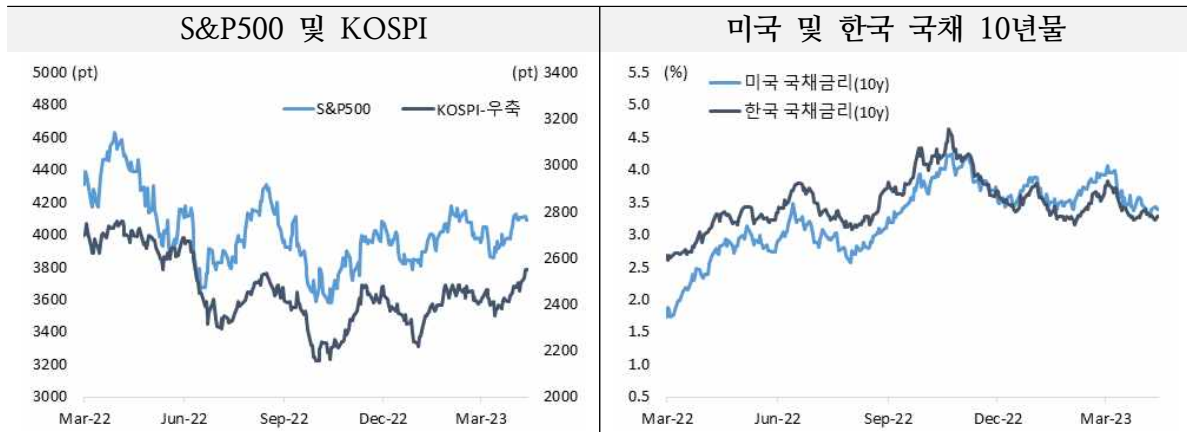
■ 미국 달러화, 국내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당분간 약세 예상 - 블룸버그

(Dollar to Keep Cooling Down No Matter How Hot US Inflation Runs)

■ 중국 국채수익률 하락, 당국의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반영 - 블룸버그

(China Bonds Rally on Hopes PBOC Will Ease to Stimulate Growth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